



조선대학교병원뉴스

CHOSUN UNIVERSITY HOSPITAL NEWS

· 발행인 : 이상홍 · 편집인 : 김경중 · 기획편집 : 조선대학교병원 홍보팀 · 홈페이지 : <http://hosp.chosun.ac.kr> · 대표전화 : (062) 220-3114 · 홍보팀 : (062) 220-3288 / FAX 226-5882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통권 제113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조선대병원-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치매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사업성과보고회 개최



치매국책연구단장 이건호 교수



조선대병원 신경과 김후원 교수

조선대학교 차매예측기술국책연구단(단장 이건호 교수) 사업성과 보고회가 1월 14일 오전 10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문화관 2층에서 치매연구 관계자와 지역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2019년까지 정부출연금 포함해 155억 원의 연구비를 바탕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예측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치매예방관리센터와 조선대병원 치매정밀검진센터,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의 분담을 통해 치매 예방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 ▲ **광주시 치매예방관리센터** – 치매 무료 검진으로 치매 위험군 선정, 지역 노인치매 조기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조선대병원 치매정밀검진센터** – 치매위험군 검사자를 대상으로 MRI, PET-CT, 뇌파촬영, 혈액검사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전문 의료진이 검진과 진단
- ▲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 검진기록, 정밀진단기록을 토대로 뇌영상 분석 실시, 체혈 혈액 분리 정제로 바이오뱅크 저장 및 첨단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하여 치매예측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자료 마련

특히 조선대병원은 치매 연구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 MRI 기반 인지기능 예측 원천기술 국내 특허 확보 ▲ 지역사회 대규모 MRI 기반 노인 코호트 구축 ▲ 한국 노인 표준 뇌지도 예비 구축 등 전문 의료진의 활발한 선행연구와 임상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권에서 치매 연구에 있어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대병원과 치매국책사업단, 광주과기원 등 협력 기관은 치매연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아시아 국가의 진단시장 선점 및 의료기술 기반의 관광·요양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에서 희망을 전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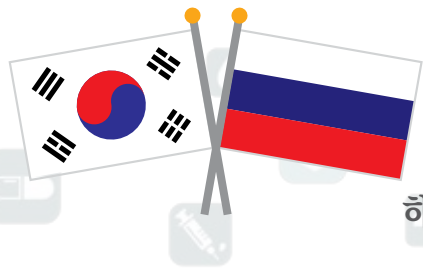
- 헤브론병원과 MOU체결로 진료 및 교육 협력
- 캄풍스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 준비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단장 이상홍 병원장)은 개발도상국의 의료지원사업과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따뜻한 인술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은 23~28일 동안 캄풍스푸 광주진료소와 프놈펜 헤브론병원에서 29명의 의료진·교직원·학생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따뜻한 인술을 펼치게 된다. 조선대병원의료봉사단은 지난해 2월과 7월 두 차례 캄풍스푸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지역민의 건강을 살폈고, 현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급히 수술이 필요한 환자 3명을 조선대병원으로 초청하여 무료로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아 주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현지 담당자와 2달 동안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헤브론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조선대병원 비뇨기과 수술팀을 파견해 최고의 의술을 펼칠 예정이다.

캄풍스푸 광주진료소에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로 구성된 의료진과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행정인원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참여하여 유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캄풍스푸 고아원을 방문하여 광주FC에서 지원받은 축구용품 및 조선대병원 교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학용품 전달할 예정이다.





‘한·러 연수프로젝트 수행의료 기관선정’

해외의료인 연수프로그램 러시아 의료인 3인 조선대병원 연수



조선대학교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한·러 보건의료협력 연수 프로젝트’ 수행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연수프로젝트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 전수 및 한·러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의료 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수는 러시아 의료진 15여 명이 한국의 유수의 병원을 방문하여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주간 연수를 실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정 의료기관과 협약체결을 한 후 2월 1~5일 러시아 연수생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이후 수행 의료기관에 러시아 의료진이 배치되어 본격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조선대병원에 선정된 러시아 의료진은 총 3명(▲정형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으로 연수기간 동안 최신 의료기술 교육과 첨단 의료 장비 실습은 물론 한국어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한·러 연수프로젝트 수행 의료기관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조선대병원을 비롯하여 분당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부천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원광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선정되었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해외 의료진 교육기관으로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교육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한몽서울연수프로젝트’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 의료진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한 바 있다.



해외 의료진 및 의료종사자 교육수련 병원 역할 ‘원더풀’

몽골 의료진 3명, 사회복지사 13명 등 선진 의료 체험을 위해 방문

조선대학교병원이 개발도상국 의료진과 의료종사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의료진 교육수련 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의료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국립의과대학병원 전공의 3명이 조선대병원을 방문하여 3개월(2016.1.26 ~ 4.25일)간 지도교수로부터 선진 의료 수술 기법과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바이르첵겔(28세,남), 하쉬출롱(28세,남), 바드랄(30세,남)은 장정환·김유석 교수(외과), 서홍주 교수(흉부외과), 임동훈 교수(비뇨기과)등 조선대병원 대표 교수들이 지도교수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병동 회진과 컨퍼런스 등에 참관하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술 관련 지식 전달과 최신 의료기기 사용법 전수 등 선진 의료 기술 전달을 위한 강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몽골에도 잘 알려져 이달 초 몽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의료종사자 교육 요청으로 의료종사자 13명과 지도 교수 2명이 이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선대병원에서 의료 시설 견학 및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의료종사자들은 재활의학과 치료실, 영양팀, 사회사업실 등 자신의 전공 분야별 담당 부서에 배치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조선대병원, 교육수련 병원 경쟁력 최우수

광주·전남권 병원 중 유일하게 인턴정원 채워.
인턴 협의진료개선지침 마련 등 개선 영향



전국 주요병원에서 인턴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큰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병원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 소재 수련병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달 사태’를 면치 못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수련 병원들의 인턴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선대병원을 제외하곤 모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대표적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미달’로 나타났으며,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기독병원도 19명의 정원 중 14명이 지원, 광주보훈병원도 10명 모집에 7명이 지원했다.

조선대병원은 37명 모집에 40명이 지원해 정원을 유일하게 넘겨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대병원 지원 인턴 40명의 출신대학 현황을 보면 조선대 의전원출신이 28명, 의대출신 7명, 서남대 3명, 전남대, 전북대가 각 1명씩 총 40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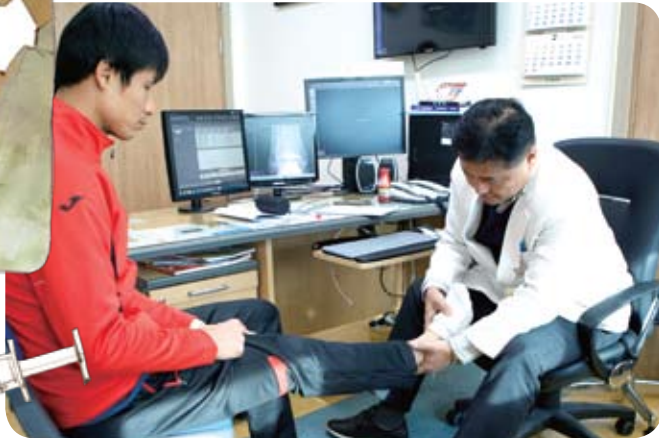
조선대병원이 인턴 확보에 선전한 이유는 지난해 2월에 발대식을 가진 ‘시스템개혁추진단’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인턴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련과정의 개선, 훌륭한 인턴복지 혜택과 급여, 해외 의료진 수련병원으로 국제적 교류 확대 등에서 경쟁력을 갖춰 지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조선대병원은 인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협의진료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점진적인 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자구책을 찾아가는 모습에 타 병원과는 다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홍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이 인턴 모집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혁신의 결과물이다”며 “향후 인턴 전용 기숙사 등 복지여건 개선과 잡무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 습득을 위해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계적 선수 건강관리로 ‘부상 피할 수 없다면 예방하라’

정형외과·재활의학과, 광주FC 프로·유소년 선수 등 전문 운동프로그램 제공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



정형외과 김동휘 교수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는 지역 프로 및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경기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 선수 관리시스템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번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광주FC 축구 선수들이 조선대병원 정형외과와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해 경기력 향상 및 부상 예방을 위한 검진과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조선대병원은 2002년 월드컵 지정병원 역할을 담당하며 팀 닥터를 배출하는 등 스포츠 의학 분야에 있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표적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홍명보 감독이 이끈 올림픽 대표팀 주치의로 활약하였던 족부 및 족관절 분야 전문가인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는 광주FC 창단 시부터 팀 닥터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축구 경기 중 빈번히 발생하는 발목염좌는 물론 정밀한 검진을 통해 부상 정도에 적합한 밸런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고유 감각을 살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어깨관절 및 팔꿈치관절 분야의 ‘명의’로 손꼽히고 있는 **정형외과 문영래 교수**는 기아타이거즈 야구팀의 투수진, 테니스 선수, 하키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용 3D 프린팅 기술의 국내 대표적인 전문가로 환자의 CT 및 MRI 기록을 기반으로 실제 환자 모형을 3D 프린팅하여 수술 전에 담당 전문가와 함께 실제 모의 수술을 통해 한 차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부상을 당하는 무릎 부위는 무릎 관절 전문가 **김동휘 교수**가 재활의학과와 함께 수술 및 기능적 재활 훈련으로 부상 이후 빠른 복귀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준영 교수는 “선수들이 부상이 생기면 회복을 위해 피눈물 흘리며 재활 훈련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이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선수와 팀 관계자, 의료진이 함께하는 부상을 방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 빛고을나눔대축제 행사 성금 조선대병원 난치병 환우를 위해 기금전달식

‘2015 빛고을나눔대축제 행사’ 시민기부금 전달식이 2월 3일 오후 3시에 조선대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열렸다.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지난해 10월 24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빛고을나눔대축제행사 나눔장터 활동으로 광주 시민들이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 50%를 기부하여 2,400만 원의 소중한 기금이 조성됐다.

이 기금은 조선대병원에 전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희귀 난치병 어린이 선별을 통해 집중 치료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러 연수프로젝트’를 통한 최신의료기술 교육

조선대학교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한·러 연수프로젝트’에 선정되어 2월 11일 오후 5시, 하중현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상홍 병원장·소금영 부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러시아 의료진 ▲ Arseniy Koshkin 아젠티 코쉬킨, 정형외과 ▲ Renat Guspanov 웨냐트 구스파노프, 비뇨기과 ▲ Roman Kurumov 로만 쿠루모프, 이비인후과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프로젝트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 전수 및 한·러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 발전을 목표로, 참여한 러시아 의료진은 3명은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달 동안 최신 의료기술 및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년 / 명예 퇴임식



〈첫 번째 줄 왼쪽〉 김성환 교수, 유재원 교수, 양정열 교수, 정종달 교수, 하상호 교수, 오재희 교수, 이상홍 병원장, 최상준 의학전문대학원장, 김종중 교수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년·명예 퇴임식이 2월 15일(월) 오후 4시, 김동국홀에서 열렸다. 이날 퇴임식에는 정든 교정을 떠나는 아쉬움을 함께 하고자 많은 후배 교수, 교직원들이 참여하였다. 지역 의료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적인 수고를 다하여 주신 퇴임 교수님을 위한 감사패 수여식과 고별강의 시간을 마련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년퇴임(5명)

- ▲ 성형외과 양정열 교수
- ▲ 영상의학과 오재희 교수
- ▲ 마취통증의학과 정종달 교수
- ▲ 정형외과 하상호 교수
- ▲ 해부학교실 김종중 교수

명예퇴임(2명)

- ▲ 외과 김성환 교수 ▲ 정형외과 유재원 교수

다양한 나눔활동 호평, ‘차(茶)나눔 희망캠페인 / 미아 예방 공익캠페인’

조선대학교병원이 2월 16일 병원1층 현관에서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희망활동 차(茶)나눔 캠페인’과 (사)함께하는 사랑밭 ‘미아 예방 공익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차를 병원을 찾는 환우를 위해 대접하여 좋은 평을 듣고 있다.



조선대병원 - 병원노조, 노사화합으로 불우환우 함께 도와 '훈훈'

불우환우돕기 바자회를 통한 성금 100만원 병원 전달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김혜경)는 지난해 12월 불우환우돕기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 100만원을 26일 10층 회의실에서 조선대병원에 기탁했다.

조선대병원 노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우를 위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병원 본관 앞 휴게공간에서 사랑나눔 바자회 성황리에 마쳤고,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을 조선대병원 사회사업실 기탁하여 환우의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조선대병원과 병원노조는 상호 협력하여 어려운 환경으로 치료를 못하는 환자를 돕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의료 관련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여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4월 해외환자 수술비 마련 바자회, 국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교직원의 자발적 성금 모금 등 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베풀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도 신임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직무교육으로 가슴 따뜻한 인술을 펼치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016년도 신임전공의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2월 15~19일까지 하종현홀에서 37명의 인턴,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윤성호 교육연구부장의 병원 인사 소개와 교육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소금영 부원장의 병원현황 안내를 통해 조선대병원의 나아가는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감염관리, 개인정보보호교육, 환자안전관리, CPR교육 등 다양한 이론과 실습과정은 물론 1박2일의 워크숍을 통해 선배와의 만남, 병원장 소통의 시간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슴 따뜻한 인술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는 무엇이고, 어떻게 감염되나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의해 감염됩니다.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숲모기

○ 국내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나요?

국내 감염사례 및 해외 유입사례가 보고는 없으며, 유행국가에 여행할 경우만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보통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이 지나서 증상이 시작되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홍반성 구진성 발진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없으나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긴소매, 긴바지 착용을 하고 수면 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신부인데 나와 태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국가에서 모기 회피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신중에 발생국가를 다녀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행에서 돌아와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관절염, 충혈 등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면서 해외여행력을 꼭 이야기 해주시고, 임신부의 증상 발생과 상관없이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양혈액내과 박상곤·이비인후과 최지윤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2016년판 등재



박상곤 교수



최지윤 교수

종양혈액내과 박상곤 교수와 이비인후과 최지윤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년판에 등재된다.

박상곤 교수는 종양혈액내과 항암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항암제의 내성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10편 이상의 SCI급 논문을 게재하였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3, 2014년 연속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현재 캐나다 알버타주 암센터에서 간담도 암에 대하여 국제적 다학제 공동연구 중으로 8월에 귀국 예정이다.

최지윤 교수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성형 및 안면성형재건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미국안면성형학회지를 포함한 국내·외 다양한 학술지에 '고어텍스를 이용한 용비술의 조직학적 소견', '동양인의 코 연장술의 방법과 장·단점', '콧방울을 교정하는 새로운 수술 방법' 등 다수의 우수 논문을 발표하고 독창적인 수술 및 수술기구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등재됐다.

병리과 임성철 교수, 미래부장관 표창 수상

전자현미경 등 투자 효율성 극대화,
국가 연구개발 시설·장비 유공자에 선발



임성철 교수

병리과 임성철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국가 연구개발 시설·장비 유공자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임성철 교수는 조선대학교 공용실험실장을 수행하며, 신형 전자현미경을 도입하여 교내 실습은 물론 사용을 의뢰하는 학계와 기업체 등에 장비를 개방해 고가의 장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협력기관의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실험실습관장직도 담당하여 교내에 산재된 교비, 국비 장비목록을 작성 및 홈페이지 공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장비 이용 신청 예약제도로 개편하여 예약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이 결과 주요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사용한 업체의 분석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가 연구시설 및 장비의 투자 효율성 극대화, 공동활용 촉진에 뚜렷한 공이 있는 유공자 10명과 1개 기관을 표창하였다.

손위생 우수직원 시상식 (2015년 4분기)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 우수직원 시상식을 2월 2일 하종현 홀에서 열었다. 손위생 시상식은 환자안전과 의료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인 손위생 수행에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표창하는 행사이다. 손위생 청결 강화를 통해 환자와 대면하는 의료진은 물론 모든 병원 교직원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우수상



신경과 추인성

최우수상



특수부서간호팀 장한나

최우수상



진단방사선팀 노상호

우수상



특수부서간호팀 이미란

우수상



교육연구부 문서주

우수상



성형외과 김충현

우수상



병동간호2팀 유연의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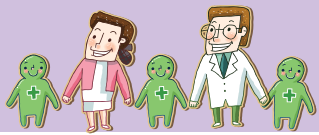


병동간호2팀 김설애

이번 손위생 시상식에는 총 8명의 직원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 최우수상(3명) – 신경과 추인성 교수, 특수부서간호팀 장한나 간호사, 진단방사선팀 노상호 방사선사
- ▶ 우수상(5명) – 특수부서간호팀 간호사 이미란, 교육연구부 인턴 문서주, 성형외과 전공의 김충현, 병동간호2팀 간호사 유연의, 병동간호2팀 간호사 김설애

병원
소식



CHOSUN UNIVERSITY HOSPITAL



교직원 동정(2016년 1월~2월)

임명장 수여식

1월 환영합니다(입사)

1. 원무팀 - 백진아
2. 시설관리팀 - 류남규
3. 특수부서간호팀/응급실 - 박지은

1월 수고하셨습니다(퇴사)

1. 외 과 - 김성환

2월 수고하셨습니다(퇴사)

1. 성형외과 - 양정열
2. 마취통증의학과 - 정종달
3. 영상의학과 - 오재희
4. 정형외과 - 하상호
5. 정형외과 - 유재원
6. 보험팀 - 염영현
7. 약무팀 - 정효선
8. 병동간호1팀/31병동 - 문형윤
9. 수술간호팀/수술실 - 김성전
10. 병동간호1팀/53병동 - 전홍미
11. 병동간호1팀/52병동 - 장새롬

1월 축하합니다



왼쪽부터 시설직원 류남규, 행정직원 백진아, 이상홍 병원장, 간호사 박지은



조선대병원 기부금 약정현황(2015.12.23. ~ 2016.2.22)

(단위: 원)

번호	소 속	성 명	약정금액	누 계
1	병원장	이상홍	10,000,000	25,100,000
2	정형외과	이준영	10,000,000	16,708,500
3	정형외과	하상호	10,000,000	30,100,000
4	마취통증의학과	정종달	5,000,000	10,000,000
5	총무부	김정만	1,300,000	15,029,600
6	교육수련팀	강형균	2,400,000	10,023,700
7	진단검사의학팀	이근조	4,000,000	10,463,080
8	총무팀	노경영	4,000,000	10,419,700
9	시설관리팀	김영관	4,500,000	10,242,800
10	기획팀	안귀복	3,327,000	10,000,000
11	구매팀	박민수	3,600,000	12,444,000
12	원무팀	국중이	400,000	10,048,400
13	총무팀	최은아	2,400,000	9,022,470
14	총무팀	임주연	2,500,000	8,156,920
15	기획팀	김형진	2,400,000	5,162,900
16	의료정보팀	정귀택	3,000,000	10,020,100
17	홍보팀	문봉주	2,100,000	15,060,700

방송 보도

▶ 1월

1. 1/7 평화방송라디오, 피부과 나찬호 교수 - 겨울철 피부질환
2. 1/14 평화방송라디오,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 - 겨울철 신경질환
3. 1/21 평화방송라디오, 이비인후과 최지윤 교수 - 이비인후과 질환

▶ 2월

1. 2/2 KBS 집중인터뷰 이사람, 비뇨기과 임동훈 교수 - 광주금연지원센터 관련사항
2. 2/4 평화방송라디오, 신경과 김후원 교수 - 치매 예방법과 치료법

3. 2/6 KCTV 청춘노트, 이상홍 병원장 - 청춘 상담 및 병원 홍보
3. 2/11 광주MBC뉴스, 감염내과 윤나라 교수 - A형 독감 유행
4. 2/11 평화방송라디오, 정신건강의학과 추일한 교수 - 치매 상담 및 정신치료
5. 2/12 KBS 라디오 정보시대, 순환기내과 장경식 교수 - 심부전증 유병률과 원인, 증상
6. 2/18 평화방송라디오, 외과 김유석 교수 - 유방암 치료와 예방법
7. 2/21 SBS 일요특선다큐, 응급의학과 박용진 교수 - 스마트 응급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추 일 한 교수

치매 예방을 위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100명 중 8-9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중 약 10-15%는 치료가 가능 하지만,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퇴행성 치매의 경우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매 역시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습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손을 많이 움직이도록 합시다. 손은 가장 효율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신체 일부로 손놀림이 많은 동작이나 놀이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하여 치아를 닦거나, 바느질, 단추 끼우기, 악기연주 등을 통해 뇌에 자극을 주도록 합시다.

둘째,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합시다. 치매는 우리 신체 중 뇌에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활발한 두뇌활동은 치매 발병과 진행을 늦추고, 인지기능감퇴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뇌 신경 회로는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고 신경세포가 강화됩니다. 두뇌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등 뇌에 계속 자극을 주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능력이 향상됩니다. 계산하기, 컴퓨터 배우기, 신문이나 책 읽기, 일기 쓰기, 암기훈련, 장기, 바둑 등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담배는 지금 당장 피우지 마시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뇌의 기능을 감소시키고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흡연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켜 치매 중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치매 형태인 혈관성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넷째, 과도한 음주를 피합시다.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 기능을 감퇴시키거나 뇌 위축을 유발하여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소량의 음주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으나 음주문화나 알코올의 특성상 소량으로 매일 조절하여 술을 마시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섯째,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을 섭취합시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신체 기관 중 하나로 이러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소와 영양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적당량 먹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꽁치 등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운동을 적절히 합시다. 적절한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량을 늘리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원활히 하여 뇌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이 넘게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 어울리도록 합시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 대화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만큼 우리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치매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인 우울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친척 만나기, 종교나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기, 자원봉사하기 등 여러 사람과 어울려 치매도 예방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도 함께 느껴 봅시다.

여덟째, 치매가 의심되지 않아도 검진을 빨리 받아 보도록 합시다. 치매 조기검진은 치매를 진단하는 역할도 하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 자신의 현재 뇌 기능을 평가받고 노화에 따른 변화판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적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